

도내 상장법인 고작 1%

전국 2043곳 중 21곳 수도권에 70% 집중

전북지역 상장법인은 모두 21개사로 전국 2천43개사 중 1%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기업유치와 향토기업 육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도내 기업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등록법인은 10개사, 코스닥 등록법인 10개사, 코넥스 1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2천43개사 중 1.0%에 불과한 수치로서 17개 광역시도 중 12번째인 것으로 조사됐다.

권역별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상장법인의 70.3%인 1천437개사가 밀집됐다.

또 영남권이 313개사, 충청권이 193개사, 호남권은 57개사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지역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자치단체별로는 익산에 소재한 기업이 6개사, 군산 5개사, 전주 4개사, 완주군 3개사, 정읍·부안·장수가 각각 1개사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화학관련제품제조업체가 6개사, 전기전자관련제품제조업체가 4개사, 기계금속관련업체가 4개사, 음식료업체가 4개사, 금융업종이 2개사, 종이제품제조업체가 1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홍 회장은 "상장법인이 지역 내

에 얼마나 있느냐는 그 지역의 경쟁력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중요한 적도로 작용한다"면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장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 지역기업들은 연구개발을 포함한 기업 운영자금 필요시 금융회사로부터 차입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등 자금조달의 통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이어 "향후 전라북도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보다 많이 상장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 철회, 기업의 지방이전 인센티브 강화, 지역균형발전 정책 강화 등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제가 로봇 태권브이입니다
6일 오전 서울 현대백화점 유포렉스 신촌점 문화홀에서 로봇태권브이 리턴즈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韓銀 대학생 통화정책 경시대회

6월 27일~29일까지 접수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6일 통화신용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를 올 7월과 8월에 걸쳐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6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는 대학생들에게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모의체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통화신용정책과 한국은행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한다는 데 그 의의를 둔다.

대회 참가를 원하는 대학생(대학원생 제외)은 재학생 4명이 1팀을 구성해 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휴학생 및 졸업유보생은 팀당 1인

까지 참가 가능하며, 타대학교 학생과 연합팀을 구성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합팀의 경우 팀원이 소속된 학교 소재지 중 대다수가 포함된 지역에서 예선을 볼 수 있고, 지역이 동수(2:2)이거나 모두 상이한 경우에는 참가팀이 해당지역 중 선택해 예선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오는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3일간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뉴미디어팀(02-759-4526·5374, bdkpr@bdk.or.kr)에 문의하면 된다.

/정영수 기자

무연산 위스키 '골든블루' 제품원가 논란

원액단가 감소·영업이익 수직상승으로 불신 증폭

'골든블루'의 무연산(non age statement) 제품의 원가 논란이 뜨겁다.

골든블루가 무연산 위스키를 잇따라 출시하면서 연산 위스키와의 가격적 정성을 놓고 소비자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원액단가는 매년 줄고 있는 반면 영업이익, 순이익은 수직상승하고 있어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골든블루 측은 무연산 위스키 제품 가격은 경쟁사 대비 무려 2배 가까이 높게 책정된 반면 제품의 주 원료인 원액, 제품별 차별성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라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주력 제품의 '사피루스'와 더 다이아몬드'는 38.9%로 같은 도수이지만 출고가는 각각 2만6334원, 4만624원에

로 1.5배 이상 차이가 난다.

앞서 골든블루는 2009년 당시에는 12.17년산으로 출시했지만 2012년에 들어 12년산은 '사피루스'로, 17년산은 '더 다이아몬드'로 이름을 바꿔달았다. 제품명에 연산을 얹어 무연산 위스키가 됐다. 이 과정에서 무연산이 됐지만 원액 단가는 낮아지면서 원액 연산을 알수 없는 제품이 사용됐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6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골든블루는 최근 원액 단가를 낮춰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무연산인 골든블루의 제품의 위스키 원액 단가는 2년 새 10% 가까이 줄었다.

위스키 주요 원재료인 원액은 지난 해말 기준 2만6667원에 거래됐다. 2014년에도 2만6667원과 같은 금액이었던 2013년 2만18901원에 비하면 10%



정도가 적은 금액이다.

원액 단가가 낮아진 배경을 두고 골든블루 측은 위스키원액은 수입 환율의 영향에 따른 변동이 있다고 설명하지만 이 기간 원달러 환율은 2년새 13% 올랐다는 점에서 환율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12월31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04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12월31일에는 130원 오른 1177.50원 거래됐다.

/이성주 기자

전북은행과 함께하는 장애인 합동결혼식 성황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사)전라북도신체장애연합회(회장 이일우)와 함께 6일 전주 노블레스 웨딩컨벤션에서 전북은행과 함께하는 제17회 전라북도신체장애인 합동결혼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결혼식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함께 살고 있던 도내 저소득 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전라북도신체장애

연합회 시·군 지부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선정된 12쌍의 장애인가정이 생애 처음으로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고 400여명의 하객의 축하 속에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에 필요한 신랑·신부 예복(양복, 한복, 드레스 등), 예불, 신혼여행 비용은 전북은행과 전라북도신체장애연합회에서 전액 지원했다. 또한 전북은행은 결혼식을 마친 12쌍의 장애인가정에게 중국 북경으로 2박 3

일의 신혼여행을 지원했다.

전북은행 오병진 부행장은 "결혼식을 통해 가족 구성원이 행복하고 결속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전북은행에서는 '장애인식개선 공모전', '행복한 추억 가족사진', 'JB희망의 공부방' 등의 장애인관련 사업을 전개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년 동안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된 합동결혼식을 통해 총 215쌍의 장애인이 결혼식을 치러 더욱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

/정영수 기자



kt남원지점은 6일 순창 고추장 마을 민속마을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kt남원지점-순창 고추장마을 협약체결

GIGA 빌리지 구축 협력

kt남원지점(지점장 임동욱)은 6일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대표 장효근)과 GIGA 빌리지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 대표 향토음식단지인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에

GIGA 인터넷 등 최첨단 정보통신 시설을 구축, 외국인 관광객과 입주업체들에게 편리한 정보통신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고추장 민속마을 이미지 제고 및 홍보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kt는 이 지역에 7,000만원을 투자해 광케이블 지하 매설회를 추진한다.

/신광영 기자

전개공, 만성지구 부체도로 정비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가 전주 만성지구 내 부체도로에 대한 정비를 시행한다.

부체도로는 기존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든 임시우회도로다.

전북개발공사는 지난 2015년 1월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체도로(L=1.8km)를 개통했다.

또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과속 방지턱 15개소를 설치했다.

전북개발공사는 공사차량의 통행이 줄어들면서 부체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과속 방지턱을 정비해 운전자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신광영 기자

전주롯데백, 9일 대규모 할인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박종우)은 오는 9일 단 하루동안 6층 매장에서 대규모 할인행사를 갖는다.

이번 할인행사는 사구(4, 9) 싫은날이란 테마로 진행된다.

TBI, 난닝구, 써스데이아일랜드, NBA 등 총 28유명브랜드가 대거 참여할 예정이며 다양한 봄 상품들을 50%~6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 볼 수 있다.

또한 '아광팔찌 차광! 할인 받자!', '브랜드 PARTY 649~'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진행한다.

특히 크리스마스 브랜드에서는 매장을 찾는 고객 20명에게 매장 내 모든 바지상품을 3만9천원 균일가 행사를 진행하고, 10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영화관람권(1인2매) 증정행사도 한다.

아울러 300명에게 20만원 이상 구매시 1만원 롯데상품권, 100명에게 10만원 이상 구매시 5천원 식품권 전용 롯데상품권을 증정한다.

/신광영 기자

군산 롯데주류, 도민체전 홍보 '처음처럼' 100만병 출시

롯데주류 군산공장(공장장 김은수)이 오는 29일 군산에서 개최되는 '2016 전북 도민체전'을 홍보하는 소주 '처음처럼' 100만병을 출시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롯데주류 군산공장은 4월부터 지역 생선포인 '처음처럼' 소주병 라벨을 적극 활용해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등 대규모 행사 홍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0년간 지역과 함께 해온 향토기업으로서 내고장 발전 및 지역 사회와의 소통차원에서 이뤄지게 된 것이다.

롯데주류는 처음처럼 소주 라벨에 도민체육대회를 집중 홍보함과 동시에 대규모 행사에 따른 친절·질서·정결운동을 함께 전개하고 있다.

/군산=문정근기자

한분 한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증진
문화다채 및 지역인민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